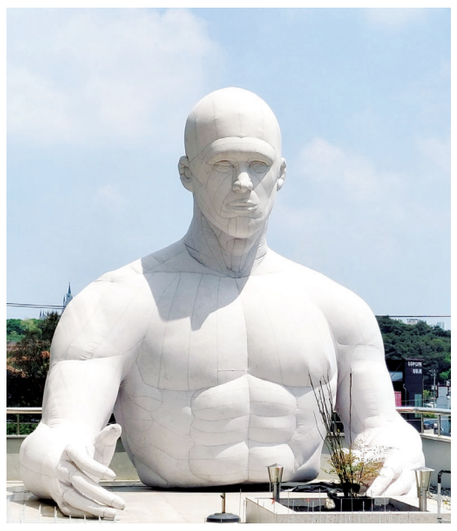
억압받는 이들의 간절한 염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동곡뮤지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7월 21일까지
구본주·하성흡 등 33명 참여…학술세미나·아트토크도 진행

동곡뮤지엄은 오는 7월21일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전을 연다.

그 작품을 보고 있으면 섬뜩한 느낌보다 분노가 치민다. 아니 통쾌함이다. 불의한 시대 탐관오리와 세도정치에 대한 단죄다. 구본주 작가의 '갑오농민전쟁3'. 가만히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죽창을 든 농민들의 함성이 느껴진다. 작품은 억압받는 이들의 간절한 염원을 그렇게 사실적이면서도 날카롭게 대변한다.

그때 그 농민들의 울분과 의분이 고스란히 전해오는 듯하다. 130년 전, 농민들은 죽기를 각오하며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뒤편의 작품 '혁명은 단호한 것이다'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농민들의 비장한 각오가 읽힌다.


이성웅 작 '공감'

(재)보문복지재단 동곡뮤지엄(동곡미술관)이 오는 7월 21일까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를 연다. (오픈식 10일 오후 5시)

정영현 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한류의 뿌리다. 우리의 주체성, 우리 민족이 견지했던 인내천 등 중요 사상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며 "부패한 세상에서 변화를 요구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농민들의 평등한 세상에 대한 염원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깊이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광주 5·18과 3·1운동의 정신적 뿌리는 동학에 닿아 있다고 한다"며 "5월 주간 등을 포함해 5월에 개막하는 이번 전시가 갖는 의미는 간단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는 광주 출신 16명과 타 지역 17명 등 모두 33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구본주, 구중서, 김갑련, 김선두, 노은영, 문서현, 박문종, 박성완, 박영근, 송필용, 신학철, 이인성, 임용현, 조정태, 하성흡, 허진, 흑표범 등이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미디어아트가 관람객을 맞는다. 시시각각 변하는 작품의 중심 모티브는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푸른 대나무다. 들이치듯 쏟아지는 빛 사이로 서걱이는 대나무는 사람 다운 세상을 희원했던 농민들의 뜨거운 외침으로 들려온다.

미디어아트를 감상하고 안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관객을 맞는다. 마치 천장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은 정기현 작가의 '나무로부터-동경대전 베껴쓰기'다. 농민들의 염원과 '사람은 곧 하늘'이라는 귀한 의미을 읽을 수 있다.

송필용 작가의 '땅의 역사-황토현'은 '동학'을 기점으로 당대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황토현에서 승리를 했지만 하늘은 무명의 농민군들이 흘린 피로 온통 불그스름하다. 작품 전면에서 지배층의 폭정에 항거했던 농민들의 목소리가 배어나오는 듯하다.

밝은 기운을 전하는 작품도 볼 수 있다, 이인성 작가의 '돌아온 계절-아버지의 선물'은 밝고 따스하고 정겹다. 그림 속 이 작가의 트레이드마크인 주황색은 보는 이에게 미소를 짓게 한다. 작가는 언젠가 "주황색 점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자, 꿈을 상징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관람객이 메시지를 적어 깃발에 꽂는 체험(설치)도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 바람 등을 간략히 적어 미술관 옥상에 깃발(약 2000개)로 내걸 수 있다. 130년 전 농민들이 들었던 죽창은 오늘의 시대에 부합하는 메시지 등으로 확장돼 다채로운 의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옥상 난간에 설치된 이성웅 작가의 '공감'은 히어로물로 눈길을 끈다. 큰 사람을 형상화한 조형물은 힐링과 안정의 의미를 준다.

학술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인내천 사상의 토대를 마련한 수운 최제우의 탄신 200주년을 기념해 '새 문명을 여는 외침: 다시 개벽과 하늘모심'을 주제로 10일(오후 1시) 열린다. 김종길(다석철학자) 외 3명의 연구자가 발표를 하고 김남수(안무비평가)가 좌장으로 4인의 토론을 진행한다.

지역 기획자(문희영, 예술공간 집 대표)와 함께 5월 내 총 3회에 걸쳐 '릴레이 아트토크'도 진행된다. 평화, 참여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과 현대 크로스오버 'Ye, 樂이요!'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11일 다섯번째 토요상설공연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며 만드는 '크로스오버'의 신명.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오는 11일 오후 3시 다섯 번째 토요상설공연 'Ye, 樂이요!'를 선보인다. 전통예술의 갈래를 재해석하거나 국악 선율을 실내악으로 연주하는 등 전통과 현대를 어우르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 '천년만세'의 선율을 살리며 새로움을 더한 '신 천년만세', 자진모리장단을 셔플 느낌으로 바꾼 '경복궁 타령' 등이 울려 퍼진다.

엇모리 편곡으로 거뜬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부각시킨 '태평가', 각 지역의 아리랑 선율을 토대로 창작한 '창작실내악곡-항해'도 관객들을 만난다.

신식 가요와 민요의 창법을 혼용해 대중성을 살린 '희망가'도 들을 수 있다. 재즈 펑크리듬의 '매화타령'은 2022년 국립국악원 '국악아티스트랩' 선정 작품이다. 미디어아트극 '환벽당 이야기'의 메인 테마곡 '창작실내악곡-푸르름의 고리를 둘러'도 레퍼토리에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통문화관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 일환으로 펼쳐진다. 절기체험 및 연희, 민속놀이, 한복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전통 예술공연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크로스오버 단체 '예락' 〈광주문화재단 제공〉

공연팀 예락은 전통음악에 뿌리를 두고 클래식, 실용음악 등 동·서양 음악의 조화를 모색하는 크로스오버 단체다. 향토성을 담은 대중음악은 물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며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락 김보람 대표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표현해 관객들이 부담 없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광주 전통공연 마당의 중심지 전통문화관에서 즐거움, 감동, 전통의 신명이 깃든 '우리 소리'에 푹 빠져보시길 권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해 진행된 우수공예품 팝업스토어 장면.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우수공예품 팝업스토어' 열려요

광주디자인진흥원, 10~12일 '더 시너지 첨단'

지역의 공예문화상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2024 상반기 우수공예품 팝업스토어'를 마련했다. 10~12일 광산구 쌍암동 시리단길 '더 시너지 첨단'.

이번 팝업스토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여개 수공예공방이 참여할 예정이다.

종목은 도자를 비롯해 섬유, 가죽, 금속, 목공예 분야의 악세서리를 비롯해 생활용품, 잡화류 등이 전시 판매된다.

특히 청년들에게 '핫플'로 알려진 첨단지구 '시리단길' 특성을 고려해 MZ세대의 취향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핸드메이드 상품을 시민들에게 많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신호상 팀장은 "문화 공예품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핸드메이드 상품에 대한 감성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멋과 솜씨가 곁들여진 수공예품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 1회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공모…8월13일까지 접수

전남문화재단이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제 1회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을 현상 공모한다.

10·19평화문학상은 여수·순천 10·19사건을 모티브로 한 진실과 평화·인권 및 해원·상생의 가치 구현 등을 주제로 시·소설 2개 부문으로 공모가 이뤄진다. 소설 부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의 중·단편, 시 부문은 5편을 제출하면 된다.

모든 작품은 미발표작으로 작가 자신의 순수 창작품이어야 한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총상금은 5000만원으로, 소설 부문은 최우수 2000만원, 우수상 2편 각 500만 원이며 시 부문 최우수작품에는 1000만원, 우수상 2편은 각 500만원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작품집으로도 발간된다.

응모작은 8월 13일(마감 당일 오후 6시 도착분 유효)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께 전남도와 (재)전남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